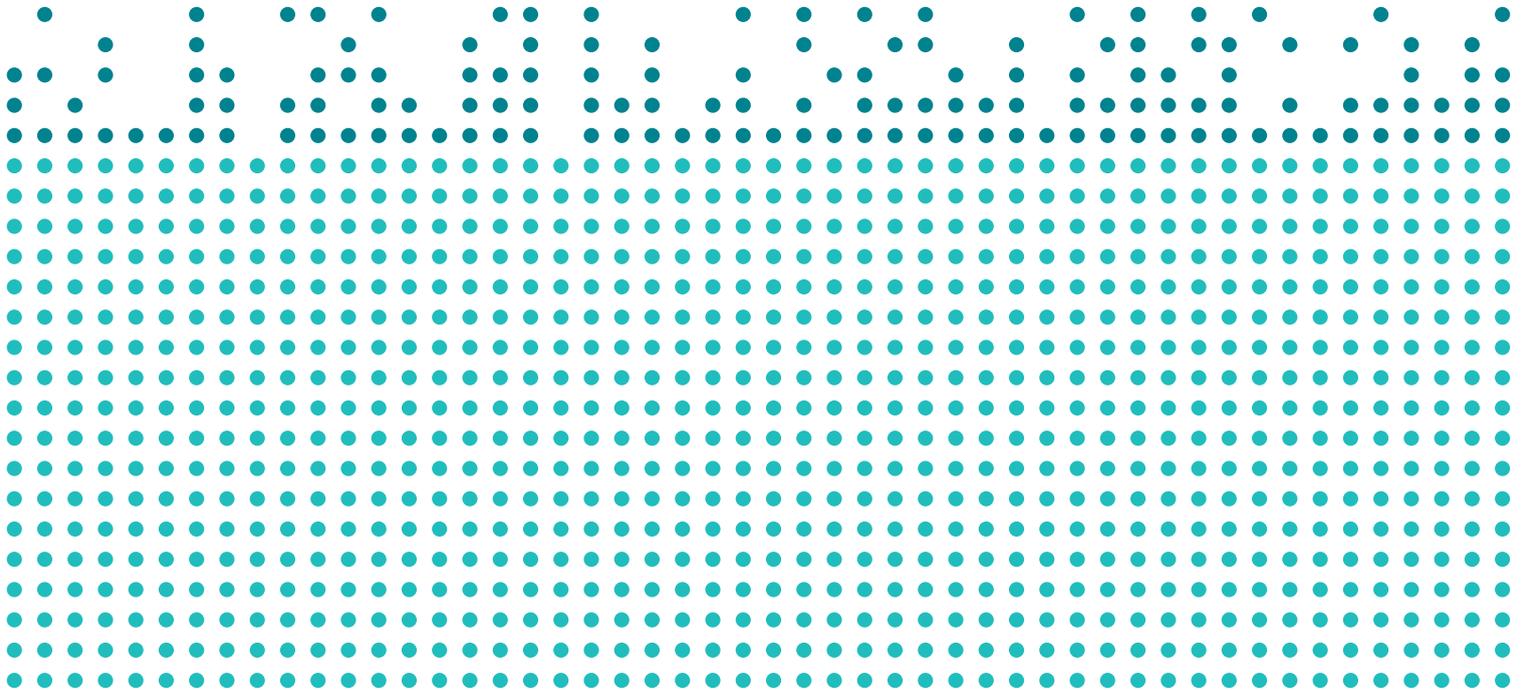




KOCHI자료 11-01

‘위안화 무역결제 확대’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동향 및 전망



‘위안화 무역결제 확대’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동향 및 전망

작성 및 분석

중국사업처 황 유 선 과장

설문 및 인터뷰

5개 KBC 베이징 허 성 무 차장, 상하이 김 명 신 차장, 칭다오 김 주 철 차장,
광저우 오 영 주 과장, 다롄 김 우 정 과장

중국사업처 서 지 영

'위안화 무역결제 확대'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동향 및 전망

□ 조사 목적

- ▶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동향 및 전망 분석

□ 조사 시기 : '11. 3. 4 ~ 3. 10

□ 조사 방법

- ▶ 대중 수출입기업 : KOTRA 세미나 참석기업 현장 설문
- ▶ 중국진출 한국기업 : KOTRA KBC에서 인터뷰, 이메일, 전화 설문

□ 응답업체 : 대중 수출입기업 104개사 중국 진출기업 136개사

□ 보고서 작성 : KOTRA 중국사업처

목 차

[요 약]	1
I. 위안화 무역결제 및 국제화 추진 동향	2
II. 대중 수출입기업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및 전망	4
III. 중국 진출기업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및 전망	10
IV. 시사점	17
V. 설문 조사 문항	19

[요 약]

□ 위안화 무역결제 및 국제화 추진 동향

- 2010년 7월 중국 인민은행은 '대외무역 위안화 결제 확대를 위한 문제에 대한 통지'를 발표, 20개 성시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
- 2011년 1월 '해외직접투자 위안화 결제 시범관리 방법'을 발표, 시범기업의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허용
 - 2009년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35.8억 위안, 2010년 5,03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1배 증가, 2010년 8월말 위안화 해외직접투자액은 80억 위안, 12월말에 700억위안 규모로 확대

□ 대중 수출입기업, 위안화 결제 압력 증가로 향후 대폭 확대 계획

- 응답기업 104개사 중 46.2%가 바이어로부터 위안화 결제 요구 받음
- 기업의 94.2%가 아직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, 이 중 85.7%가 향후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바꿀 계획
 - 조사대상 대기업은 아직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, 이 중 90.9%가 위안화 결제 시스템 도입 예정
 - 변경 이유는 다양한 외환관리로 환리스크 감소, 환율 절상 기대 등임
- 기업의 81%가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, 55.7%가 위안화가 향후 10년내 국제통화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

□ 중국 진출기업의 위안화 결제시스템 도입 검토

- 응답기업 136개사 97.1%가 현재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, 이 중 69.7%가 위안화로 결제통화를 전환할 예정
 - 전환 사유는 환리스크 감소 및 불필요한 환전 절차 생략으로 외환관리 업무 간소화, 환전 수수료 절감 등임
- 반면, 응답기업의 29.4%는 위안화 결제시스템 미성숙, 환율 불안 가능성 등으로 위안화로 결제통화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
- 진출기업의 86%는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, 60.3%가 향후 10년 내 국제 기축통화가 될 것으로 예측

I. 위안화 무역결제 및 국제화 추진 동향

□ 최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

- 2009년 7월 중국 인민은행, 재정부, 해관총서, 세무총국, 은감회 등 6개부문에서는 '대외무역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방법(跨境貿易人民幣結算試點管理辦法)'을 발표, 5대 도시 시범 실시
 - ▶ 상하이(上海), 광저우(廣州), 선전(深圳), 주하이(珠海), 둥관(東莞) 365개 시범기업 대상으로 진행
- 2010년 6월 상기 6개 부문에서는 '대외무역 위안화 결제 확대를 위한 문제에 관한 통지(關於擴大跨境貿易人民幣結算試點有關問題的通知)'를 통해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 지역을 5대 도시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
 - ▶ 상하이(上海), 광둥성(廣東省), 베이징(北京), 텐진(天津), 네이멍구자치구(內蒙古自治區), 랴오닝성(遼寧省), 지린성(吉林省), 헤이룽장성(黑龍江省), 장쑤성(江蘇省), 푸젠성(福建省), 산둥성(山東省), 후베이성(湖北省), 광시자치구(廣西自治區), 하이난성(海南省), 충칭(重慶), 쓰촨성(四川省), 윈난성(雲南省), 티벳자치구(西藏自治區), 신장자치구(新疆自治區) 등 20개 성시(省市)로 확대
- 2010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수출분야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기업을 365개에서 67,359개로 확대
 - ▶ 중국의 위안화 수출 시범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과 관련된 매입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. 수입 분야는 모든 업체가 가능함
- 2011년 1월 중국 인민은행은 '해외직접투자 위안화 결제 시범관리방법(境外直接投資人民幣結算試點管理辦法)'을 통해 시범기업의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허용
- 2011년 3월 2일 중국 인민은행은 '대외무역 위안화 업무관련 검측분석 업무회의(跨境人民幣業務暨有關監測分析工作會議)'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
- 중국 인민은행, 금년도 위안화 국제화 정책 4가지 추진 방향 발표
 - ① 위안화 대외무역 결제지역 전국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
 - ② 해외 투자, 용자 위안화 역할 점차 강화
 - ▶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확대, 위안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외부채 문제 검토

③ 위안화 유통 채널 점진적 확대

▶ 위안화 외환보유액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, 채권 거래 허용 확대

④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 확대로 위안화 무역투자 자금 용도 확대

□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및 해외투자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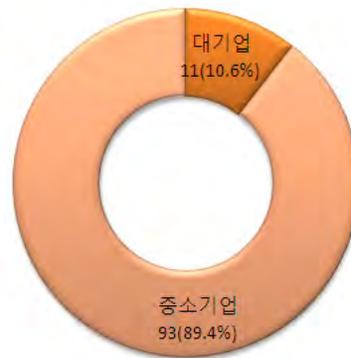
- 2010년 중국의 분기별 위안화 결제 비중은 각각 0.52%, 0.77%, 1.37%, 2.17%(이 중 수입거래가 87%, 수출거래가 13%임)로 비중 자체는 낮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
- 2009년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35.8억 위안에서 2010년 5,06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1배 증가
- 중국은 한국, 홍콩, 말레이시아, 벨로루시, 인도네시아, 아르헨티나, 싱가포르, 아이슬란드와 8,035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
- 2010년 8월말 중국의 위안화 해외직접투자액은 80억 위안이었으나 12월말에 700억 위안 규모로 크게 증가

II. 대중 수출입기업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및 전망

1. 설문 대상

□ (기업 유형) 응답기업 104개사, 대기업 10.6%, 중소기업 89.4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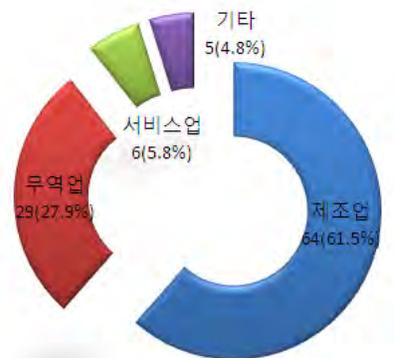
〈 圖-1 기업별 분포 〉



주: 104개사 대상

□ (업종) 제조업 61.5%, 무역업 27.9%, 서비스업 5.8%, 기타 4.8% 순

〈 圖-2 업종별 분포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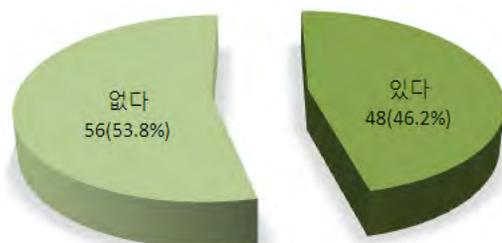


주: 104개사 대상

2. [설문내용 1] 위안화 무역결제 여부 및 의향

- (바이어 요구여부) 설문 대상기업의 46.2%가 중국바이어로부터 위안화 무역결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, 거의 절반가량이 이미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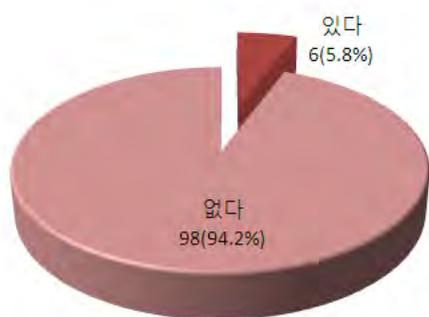
〈圖-3 바이어의 위안화 무역결제 요구여부〉



* 주: 104개사 대상

- (위안화 결제현황) 응답기업의 94.2%는 아직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, 대기업 11개사는 모두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고 있지 않음

〈圖-4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〉



* 주: 104개사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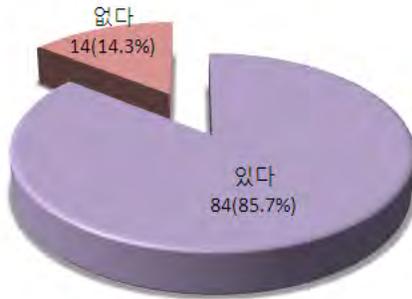
〈圖-5 대기업위안화 무역결제 현황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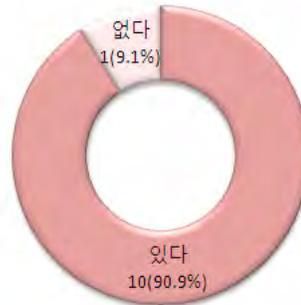
* 주 : 대기업 11개사 대상

- (결제통화 변경의향) 현재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지 않는 기업 중 85.7%가 향후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바꿀 의향이 있으며, 그 중 대기업의 경우 90.9%가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답변

〈圖-6 위안화 무역결제 의향〉



〈圖-7 대기업 위안화 무역결제 의향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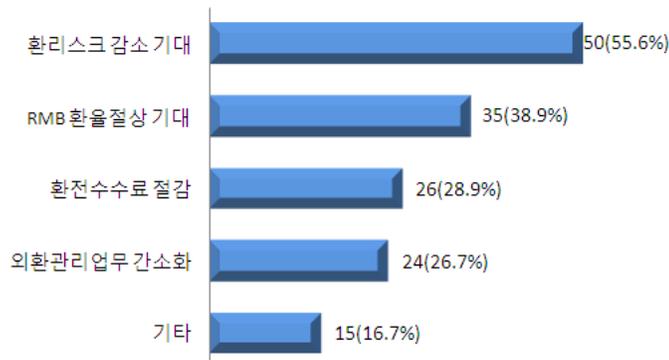
* 주: 위안화 미결제기업 98개사 응답

* 주: 위안화 미결제 대기업 11개사 응답

- (위안화 결제 사유)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거나 하기 희망하는 사유는 환리스크 감소기대(55.6%), 위안화 환율절상 기대(38.9%), 환전수수료 절감(28.9%), 외환관리업무 간소화(26.7%), 기타(16.7%) 순

▶ 기타 사유로는 거래바이어 요청으로 위안화 결제를 한다는 답변이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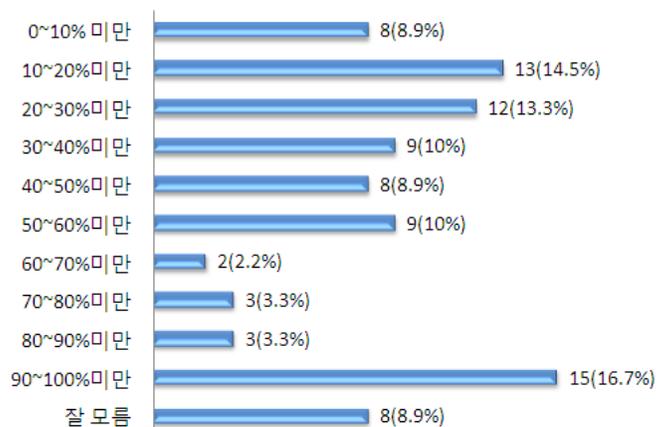
〈圖-8 위안화 무역결제 사유〉



* 주 : 위안화 무역결제 또는 결제예정 기업 90개사 복수응답

- (위안화 결제 비율) 위안화 무역결제 비율 확대 의향은 기업마다 다르나, 응답 기업의 65.6%는 위안화 비중을 60%미만 정도(0~60%미만)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, 90~100%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업도 16.7%에 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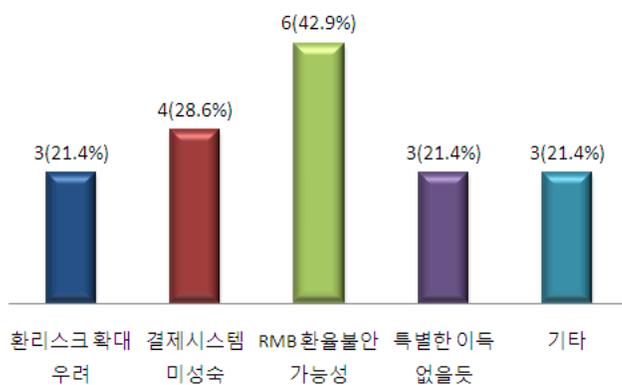
〈 圖-9 위안화 무역결제비율 확대 계획 〉



* 주 : 위안화 무역결제 또는 결제예정 기업 90개사

- (위안화 미결제 사유) 위안화 무역결제를 희망하지 않는 사유는 위안화 환율 불안 가능성(42.9%), 결제시스템 미성숙(28.6%), 환리스크 확대 우려, 특별한 이득이 없음, 기타(각 21.4%) 순

〈 圖-10 위안화 무역결제 미희망 사유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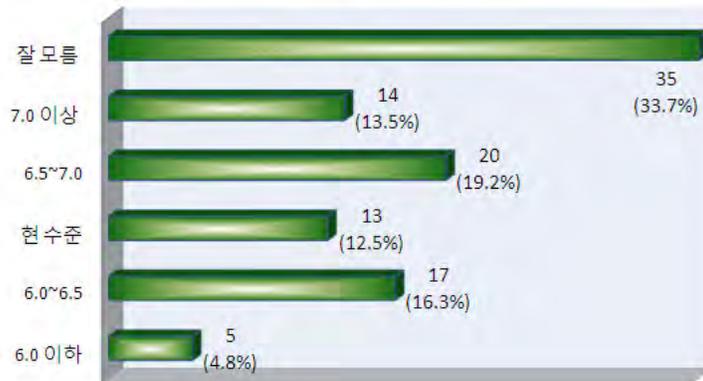


* 주 : 위안화 무역결제 미희망 기업 14개사 복수응답

3. [설문내용 II] 위안화 환율 및 국제화 전망

□ (희망환율) 기업의 45.2%가 위안화가 현수준이거나 현수준보다 절하('위안화 대미달러 환율'이 현수준(6.5)이상) 되는 것이 중국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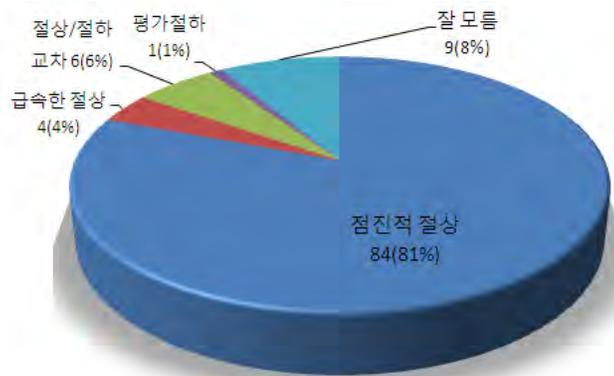
〈 圖-11 중국 비즈니스에 유리한 위안화 환율 〉



* 주: 104개사 대상

□ (환율전망) 응답기업의 81%가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절상할 것이라고 답변, 6%가 절상절하 교차, 4%가 급속한 절상을 할 것이라고 답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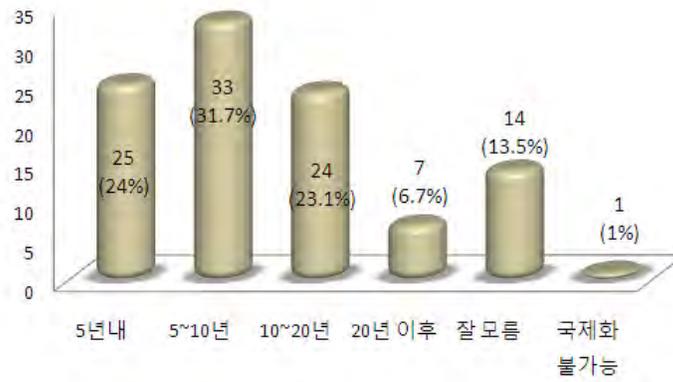
〈 圖-12 향후 위안화 환율 전망 〉



* 주: 104개사 대상

□ (위안화 국제화 전망) 현재 무역결제통화 초기에 있는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는데 소요기간이 5~10년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31.7%로 가장 많았고, 5년내가 24%, 10~20년이 24%에 달함

〈 圖-13 향후 위안화 국제화기간 전망 〉



* 주: 104개사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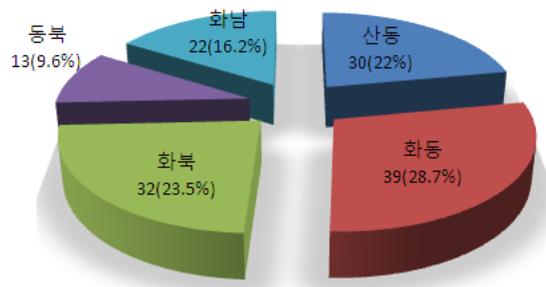
III. 중국 진출기업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및 전망

1. 설문 대상

□ (지역)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5개 지역, 136개 기업을 대상

- 화동(28.7%), 화북(23.5%), 산동(22%), 화남(16.2%), 동북(9.6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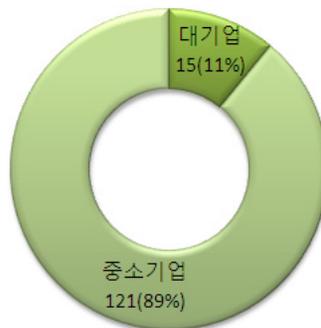
〈 圖-14 소재지별 분포 〉



* 주: 136개사 대상

□ (기업 유형) 136개 응답기업 중 대기업 11%, 중소기업 89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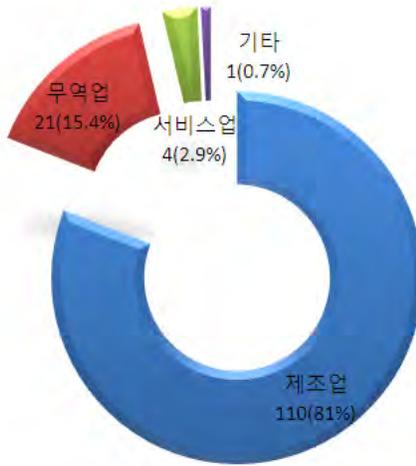
〈 圖-15 기업별 분포 〉



* 주: 136개사 대상

□ (업종) 제조업 81%, 무역업 15.4%, 서비스업 2.9%, 기타 0.7% 순

〈 圖-16 업종별 분포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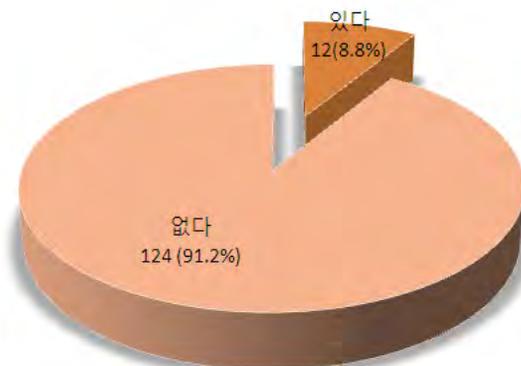


* 주: 136개사 대상

2. [설문내용 1] 위안화 무역결제 여부 및 의향

□ (은행 요구여부) 응답기업의 8.8%가 현지은행으로부터 위안화 무역결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음

〈 圖-17 현지은행의 위안화 무역결제 요구여부 〉



* 주: 136개사 대상

□ (위안화 결제현황) 응답기업의 97.1%는 아직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고 있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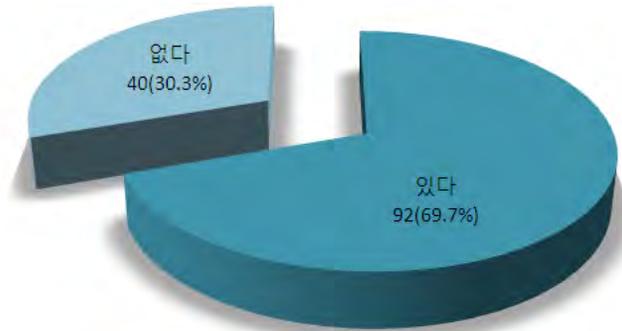
〈 圖-18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〉



* 주: 136개사 대상

○ (결제통화 변경의향) 현재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지 않는 기업 중 69.7%가 향후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바꿀 의향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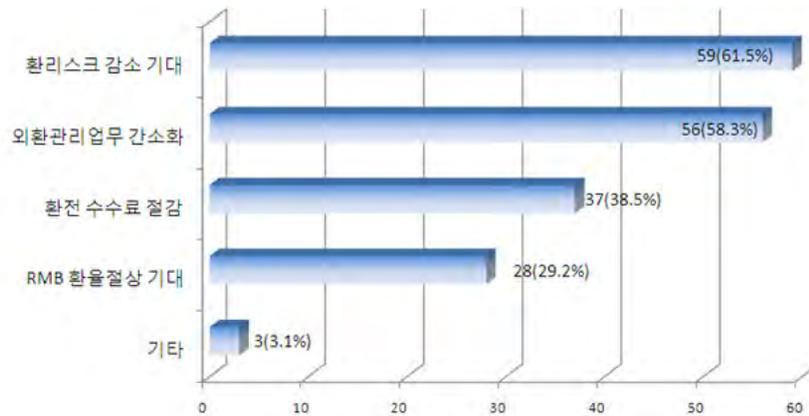
〈 圖-19 위안화 무역결제 의향 〉



* 주: 현재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지 않는 132개사 응답

□ (위안화 결제 사유)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거나 하기 희망하는 사유는 환리스크 감소기대(61.5%), 외환관리업무 간소화(58.3%), 환전수수료 절감(38.5%), 위안화 환율절상 기대(29.2%), 기타(3.1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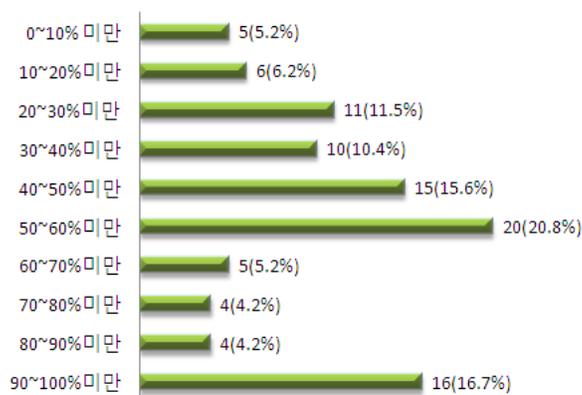
〈 圖-20 위안화 무역결제 사유 〉



* 주 : 위안화 무역결제 또는 결제예정 기업 96개사 복수응답

□ (위안화 결제 비율) 위안화 무역결제 비율 확대 의향은 기업마다 다르나, 0~60%까지 확대할 기업은 전체의 69.7%이고, 90~100%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업도 16.7%에 달함

〈 圖-21 위안화 무역결제비율 확대 계획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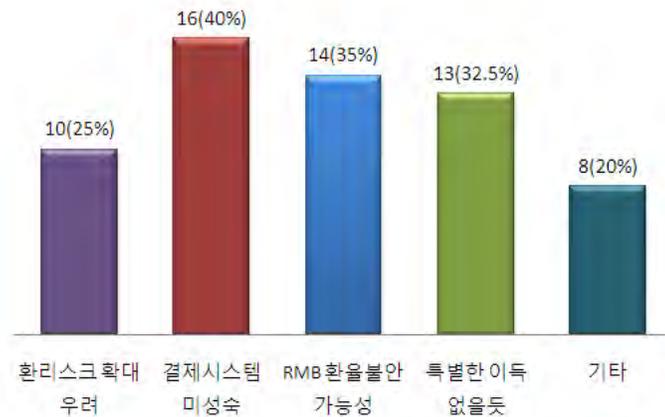


* 주 : 위안화 무역결제 또는 결제예정 기업 96개사

□ (위안화 미결제 사유) 위안화 무역결제를 희망하지 않는 사유는 결제시스템 미성숙(40%), 위안화 환율불안 가능성(35%), 환리스크 확대 우려(25%), 기타(20%) 순

▶ 기타 사유로는 거래바이어나 은행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거나, 수출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음

〈 圖-22 위안화 무역결제 미희망 사유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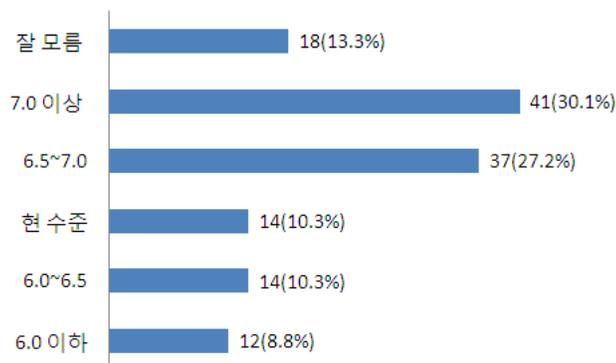
* 주 : 위안화 무역결제 미희망 기업 40개사 복수응답

3. [설문내용 II] 위안화 환율 및 국제화 전망

14

□ (희망환율) 기업의 57.3%가 위안화가 현수준보다 절하('위안화 대미달러 환율'이 현수준 (6.5)이상)되는 것이 중국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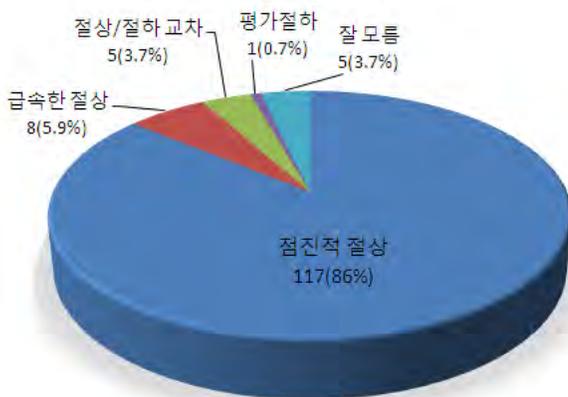
〈 圖-23 중국 비즈니스에 유리한 위안화 환율 〉



* 주: 136개사 대상

□ (환율전망) 응답기업의 86%가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절상할 것이라고 답변했고, 5.9%정도만이 급속한 절상을 할 것이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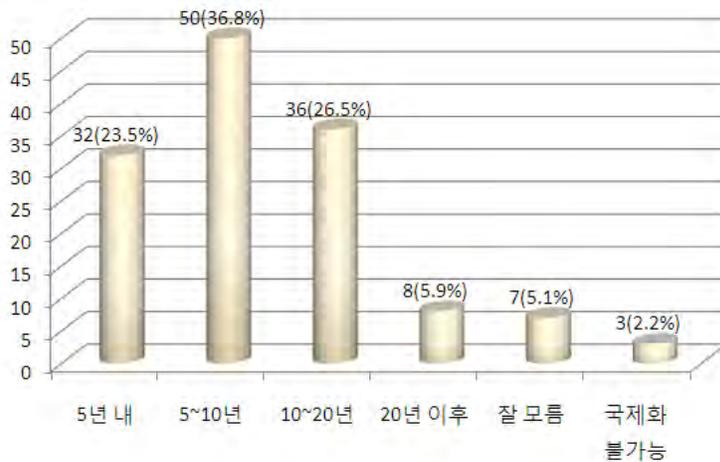
〈 圖-24 향후 위안화 환율 전망 〉



* 주: 136개사 대상

□ (위안화 국제화 전망) 현재 무역결제통화 초기에 있는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는데 소요기간이 5~10년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36.8%로 가장 많았고, 10~20년이 26.5%, 5년내가 23.5%에 달함

〈 圖-25 향후 위안화 국제화기간 전망 〉



* 주: 136개사 대상

IV. 시사점

□ 중국 바이어에게 위안화 결제 압력받는 한국 기업들

- 조사대상 한국 기업의 46.2%가 중국 거래 바이어로부터 위안화 무역결제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나, 위안화 결제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
 - 중국 현지 진출기업의 8.8%가 현지은행으로부터 위안화 무역결제를 요구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, 직간접적인 결제통화 변경 압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음

□ 현재 위안화 무역결제 비율 낮으나 향후 대폭 확대 계획

- 응답기업 중 한국기업의 5.8%, 중국 진출기업의 2.9%가 현재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고 있으나, 향후 위안화 미결제기업의 85.7%, 69.7%가 위안화로 결제통화를 변경할 계획
 - 특히, 조사대상인 한국 대기업 11개 본사는 모두 현재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, 그 중 10개사가 모두 향후 위안화 결제를 할 예정이라고 대답
 - 한국기업, 중국 진출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비율 확대 계획폭은 다양했으나, 60%까지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65.6%, 69.7%에 달함
 - 한국기업, 중국진출기업의 16.7%는 모두 위안화 결제비율을 90~100%까지 늘릴 것으로 답해, 향후 중국 비즈니스 거래 기업들의 위안화 결제가 대세가 될 것을 시사

□ 환리스크 관리, 환전수수료 절감, 환율절상 기대로 결제통화 변경 희망

- 한국기업들은 다양한 외화 보유로 환리스크를 분산(응답기업의 55.6%)하고,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이익(38.9%)으로 인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희망
 - 한국기업들 중 일부는 거래바이어의 요청으로 결제통화를 타의적으로 변경한 경우도 7.3%에 달함
-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 또한 환리스크 감소(응답기업의 61.5%), 현지에서 환전이 불

필요하여 외환관리 업무를 감소시키고(58.3%) 환전수수료를 절감(38.5%)할 수 있어 위안화 무역결제를 선호

□ 일부기업은 결제시스템 미성숙, 환율불안으로 결제통화 미변경

- 한국기업과 중국진출 기업 중 결제통화를 변경하기 희망하지 않는 사유로 각각 위안화 결제시스템 미성숙(28.6%, 40%), 위안화 환율불안(42.9%, 35%)이라고 답변
 - 중국진출 기업 중 일부는 거래바이어가 요구하지 않거나,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변경하지 않는다고 응답

□ 위안화 점진적 절상, 10년 내에 국제통화 될 것으로 전망

- 한국기업과 중국진출 기업의 80% 이상이 모두 위안화 절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
-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는데까지 10년 이내로 전망
 - 위안화가 무역결제통화에서 투자통화, 보유통화까지 확대되는 기간은 5~10년 사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30% 이상, 5년 이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도 20% 이상

V. 설문 조사 문항

1. 대중 수출입기업 설문 문항

I. 중국 바이어 RMB 무역결제 요구 여부					
1. 귀사는 수출입 거래 시 중국 바이어로부터 RMB 무역결제를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?					
A. 있다			B. 없다		
II. RMB 수출입 무역결제 현황 및 의향					
2-1. 귀사는 RMB 무역결제를 하고 있습니까?					
A. 있다			B. 없다		
2-2. (2-1에서 B 선택시) 귀사는 향후 RMB 무역결제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?					
A. 있다			B. 없다		
3-1. (2-1, 2-2에서 A 선택시) RMB 무역결제 중이거나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<복수응답 가능>					
A. 환리스크 감소기대		B. 환전 수수료 절감		C. RMB 환율절상 기대	
D. 외환관리업무 간소화		E. 기타()			
3-2. (2-1, 2-2에서 A 선택시) RMB 무역결제 비율을 몇%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?					
A. 0~10% 미만	B. 10%~20%미만	C. 20~30%미만	D. 30~40%미만	E. 40~50%미만	
F. 50~60%미만	G. 60%~70%미만	H. 70~80%미만	I. 80~90%미만	J. 90~100%미만	
4. (2-1, 2-2에서 B 선택시) RMB 무역결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<복수응답 가능>					
A. 환리스크 확대 우려		B. 결제시스템 미성숙		C. RMB 환율불안 가능성	
D. 특별한 이득 없을 듯		E. 기타()			
III. RMB 환율 및 국제화 전망					
5-1. RMB의 대미달러 환율은 2011년 3월 들어 6.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귀사의 중국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율대는 얼마입니까?					
A. 6.0 이하	B. 6.0~6.5	C. 현 수준	D. 6.5~7.0	E. 7.0 이상	F. 잘 모름
5-2. 향후 RMB 환율 전망은?					
A. 점진적 절상	B. 급속한 절상	C. 절상/절하 교차	D. 평가절하	E. 잘 모름	
6. 일반적으로 통화의 국제화는 '무역결제통화 ⇒ 투자통화 ⇒ 보유통화'의 단계를 거칩니다. 현재 무역결제통화 초기로 볼 수 있는 RMB의 경우 국제화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전망합니까?					
A. 5년내	B. 5~10년	C. 10~20년	D. 20년 이후	E. 잘 모름	F. 국제화 불가능

2. 중국진출 기업 설문 문항

I. 중국 현지은행 RMB 무역결제 요구 여부					
1. 귀사는 수출입 거래 시 중국 현지은행으로부터 RMB 무역결제를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?					
A. 있다			B. 없다		
II. RMB 수출입 무역결제 현황 및 의향					
2-1. 귀사는 RMB 무역결제를 하고 있습니까?					
A. 있다			B. 없다		
2-2. (2-1에서 B 선택시) 귀사는 향후 RMB 무역결제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?					
A. 있다			B. 없다		
3-1. (2-1, 2-2에서 A 선택시) RMB 무역결제 중이거나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(복수응답 가능)					
A. 환리스크 감소기대		B. 환전 수수료 절감		C. RMB 환율절상 기대	
D. 외환관리업무 간소화		E. 기타()			
3-2. (2-1, 2-2에서 A 선택시) RMB 무역결제 비율을 몇%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?					
A. 0~10% 미만		B. 10%~20%미만		C. 20~30%미만	
D. 30~40%미만		E. 40~50%미만		F. 50~60%미만	
G. 60%~70%미만		H. 70~80%미만		I. 80~90%미만	
J. 90~100%미만					
4. (2-1, 2-2에서 B 선택시) RMB 무역결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(복수응답 가능)					
A. 환리스크 확대 우려		B. 결제시스템 미성숙		C. RMB 환율불안 가능성	
D. 특별한 이득 없을 듯		E. 기타()			
III. RMB 환율 및 국제화 전망					
5-1. RMB의 대미달러 환율은 2011년 3월 들어 6.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귀사의 중국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율대는 얼마입니까?					
A. 6.0 이하		B. 6.0~6.5		C. 현 수준	
D. 6.5~7.0		E. 7.0 이상		F. 잘 모름	
5-2. 향후 RMB 환율 전망은?					
A. 점진적 절상		B. 급속한 절상		C. 절상/절하 교차	
D. 평가절하		E. 잘 모름			
6. 일반적으로 통화의 국제화는 '무역결제통화 ⇒ 투자통화 ⇒ 보유통화'의 단계를 거칩니다. 현재 무역결제통화 초기로 볼 수 있는 RMB의 경우 국제화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전망합니까?					
A. 5년내		B. 5~10년		C. 10~20년	
D. 20년 이후		E. 잘 모름		F. 국제화 불가능	

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

□ GBR (Global Business Report)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Check it~!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	2011.1
11-002	한-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,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	2011.1
11-003	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	2011.2
11-004	美 바이어가 뽑은 한-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	2011.2
11-005	월드컵 특수,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	2011.3
11-006	위기의 리비아, 대체시장을 잡아라	2011.3
11-007	일본·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	2011.3
11-008	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(멕시코, 브라질편)	2011.3
11-009	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(칠레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편)	2011.3

□ GIR (Global Issue Report)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	2011.1
11-002	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	2011.2
11-003	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	2011.2

□ KEB (KOTRA Executive Brief)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2011년 1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	2011.1
11-002	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	2011.1
11-003	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	2011.2
11-004	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	2011.2
11-005	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	2011.2
11-006	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	2011.3

□ KOCHI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	2011.3

□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한-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	2011.1

□ KOTRA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2011 지역별 진출전략	2011.1
11-002	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	2011.1
11-003	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	2011.1
11-004	SW 글로벌 마켓 클릭	2011.1
11-005	외국인투자기업, 한국과 통하다 -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	2011.2
11-006	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	2011.3
11-007	중국의 금융지도	2011.3
11-008	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	2011.2
11-009	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	2011.3
11-010	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	2011.3
11-011	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	2011.3
11-012	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	2011.3

□ 설명회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1-001	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	2011.1
11-002	2011 친디아 포럼	2011.1
11-003	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	2011.1
11-004	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	2011.1
11-005	2011 아프리카 포럼	2011.1
11-006	한-EU/한-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	2011.1
11-007	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	2011.1
11-008	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	2011.1
11-009	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(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)	2011.2
11-010	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	2011.2
11-011	중동·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	2011.3

– '위안화 무역결제 확대'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동향 및 전망 –
– KOCHI자료 11-001 –

발행인 : 조 환 익
발행처 : KOTRA
편집인 : 곽 동 운
발행일 : 2011년 3월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(우 137-749)
전 화 : 02)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: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2011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

‘위안화 무역결제 확대’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동향 및 전망

K O T R A - C h i n a I n s t i t u t e

